공미와이 개력 정치

平利

- 1. 4/77
- 2. 개력 내용
- 3. 君과
- 4. 五 黄 对蒙片

1. 4/77

바세기 중엽, 한족의 반간으로 원이 접차 쇠퇴하는 가운데 공민왕은 반원 개력 정책을 적극 추진합



2. 개对 내용

- 몽골식 머리와 웃 등 몽골풍을 급지시킬
- 막강한 세력을 누되던 기절을 비롯한 친원 세력을 숙청합
- 권문세족을 억압,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개력해 관기를 뽑을 때 왕이 직접 최종 면접을 주관함
- 원나라가 고려에 설치한 정동행성과 쌍성총관부출 공격해 원나라에 빼앗겼던 영토출 되찾음
- ・なり頭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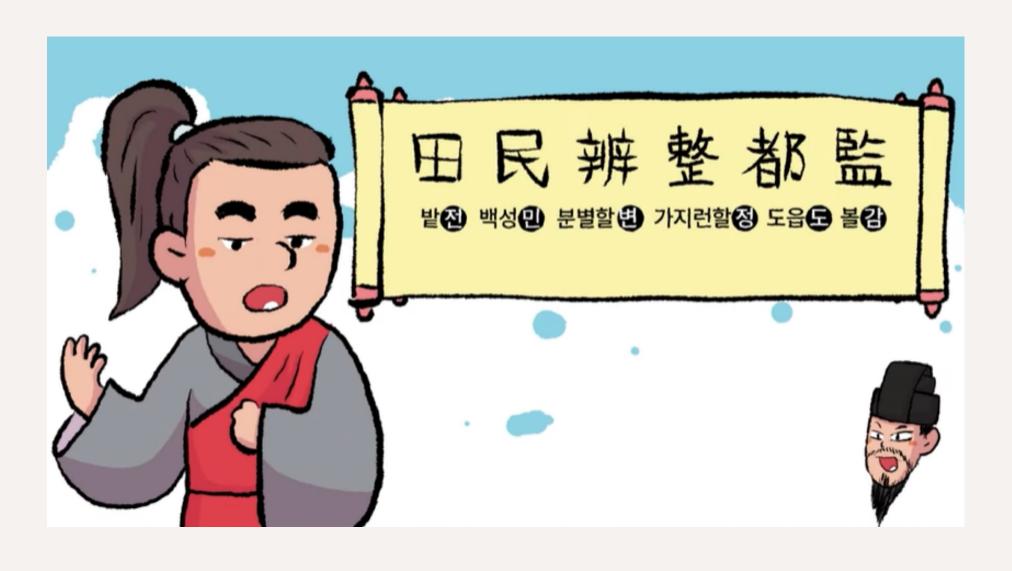
从公务业毕 千毕



X 9 7

그러던 중 노국 대장 부인이 숨지게 되었고 역에서 위조를 해주던 신돈을 신뢰하게 되어 신돈을 등용하여 개력을 돕게 함





이후 공민왕과 신돈은 전민변정도 밥을 설치합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를 백성에게 둘러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음

3. 翌과

신돈이 술과 사치를 가까이 하며 개혁을 게을되하기 시작함
권문세족들이 공민왕에게 신돈이 역모를 꾸민다고 모합하여 공민왕은 결국 신돈을 처형함
공민왕은 개혁을 포기하고 향악에 빠져 살다가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신돈과 공민왕의 상태 등으로 개혁이 꾸준히 추진되기 어려웠음 신진 사대부도 권문세족에 맞설 만큼 성장하지 못함

4. 五 蒙蒙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는 실패했지만 신진 사대부가 크게 성장하는 밀거음이 된 신진 사대부는 주로 과거울 통해 중앙 정계에 진출했고 고려 말의 사회 모순을 개혁하여 함 바c 후반 홍건적, 왜구가 자주 침략했는데 이울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두각을 나타냄, 고려 말 사회 모순의 개혁에 앞장 선 정도전 등 일부 신진 사대부는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을 건국함 (1392)